

졸업식 단상(斷想)

최기형 교감선생님



'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치르는 연례행사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마 대학진학에 실패하였거나 기대치 이하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보기가 미안하고 학부모님 대하기가 죄송스러워 그런 듯합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였거나 입시 결과와 무관하게 3년간의 학교생활에 만족한 경우 밝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을 때는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식 진행에 촉각을 세우다 올해는 졸업장 수여 후 모든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예년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8명 중 이름을 모르거나 처음 보는 듯한 모습을 대하면서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실에 전교생 사진을 붙여 놓고 얼굴을 익히며 학생상담을 했고, 모의고사나 정기고사 성적일람표를 정기적으로 보면서 학생들에게 제법 관심을 갖고 사랑하였다는 착각을 하였는데, 실은 많은 학생들을 건성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악수를 하면서 주로 '축하한다, 멋있게 살아라, 성공해라' 등의 덕담을 하였는데 상무적인 말보다, 이름을 부르며 학생의 특성에 맞게 격려를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높은 시칭됨을 얻으며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을 떠올리며 졸업생들은 30년쯤 지난 후 '응답하라 2015'를 어떻게 추억하게 될지 생각해 봅니다. '응답' 드라마에서는 덕선이와 세 친구는 물론 네 명의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가 주연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악 대결도 없습니다. 가정형편이 다르고 학교성적도 높낮이가 확연하고 성격도 다르지만 2015년 현재 모두 행복하게 자-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228명의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과 가족 모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년을 기약하며 재수를 결심한 친구도 '응답하라 2015'에서는 덕선이나 정봉이처럼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4인방의 우정처럼 송림동 동산고 65회 동기들의 우정을 간직하며 고교시절을 그리워할 것이고,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나의 존재는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을 거라는 실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 동기들의 우정을 간직하며 고교시절을 그리워할 것이고,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나의 존재는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을 거라는 실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

세상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은 '백금이나 황금'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현실에 충실하라,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지난 3년을 떠올리면 후회스러운 때도 있었고, 10년 후를 생각하면 압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졸업식에서는 모두 축하를 받고 즐거워할 만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하는 제자들에게 '얼굴 들고 웃어 봐.'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일부 학생들은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입학하던 때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하겠지요.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수를 하든, 지방대에 진학하든, 항상 '지금'에 충실한다면 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2015년 현재 덕선이처럼 30년 후쯤 '응답하라 2015'를 행복하게 추억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졸업식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축제 분위기였고 진행이 잘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연 학생회장의 '답사'가 압권이었습니다. 동기들아! (축하한다), 후배들아! (사랑한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학생회장의 선창에 학생들이 화답하는 것이 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참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순간 목 메이며 눈물을 보였던 것도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8명의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졸업식의 주인공이었다고 다시금 생각합니다. 동산 65회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翻

